

‘경신본’ 수록의문의 편찬 고찰*

제1저자 **이 성 운**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실장

제2저자 **박 선 각(우전)**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원

緒. 기미를 보다
I. 의문을 짓다
II. 견해를 듣다
III. 법식을 짜다
IV. 주해를 내다
結. 과제를 안다

* 이 논문은 2016년 8월 25일 경제어산전승보존회·경제어산연구소에서 주최한 제1회 경제어산학술·시연회에서 발표한 일차자료를 제2저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보완한 것이다.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불교 수록제 의문의 편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것으로, 그 가운데 서울시무형문화제 제43호 경제소리전승보존회와 경제어산연구소에서 편찬한 ‘경산본(京山本)’ 수록의문 편찬의 특징 등을 살펴본 글이다.

경산본 수록의문에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밝혀냈다. 먼저 수록의문 편찬의 기미를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역사상 일어난 수록의문 편찬 역사의 대강을 둘러보았으며, 경산본 수록의문에는 의문을 짓기 위해 전거 자료를 통해 그 견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의문의 법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위주로 해서 전승의 형태를 따라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었다. 편찬의 의미를 위해서 주석과 해석을 달아 편찬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편찬하였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수록제 의문 편찬에는 대략 네 가지 정도를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였다. 의례의 형식을 살펴서 의문을 편찬해야 하고, 향후 바람직한 수록의문 편찬을 위해서는 열린 사고를 견지해야 하며, 의문의 우리말화가 능사만이 아니며, 의문과 설단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핵심어: 수록의문(水陸儀文), 경산본(京山本), 서울시무형문화제 제43호, 경제(京制)소리, 결수문(結手文), 중례문(中禮文), 견기이작(見機而作)

緒. 기미를 보다

한국불교 의례설행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방식이 견기이작(見機而作)이다. 이는 의례 상황의 기미를 봐서 짓거나 쓸어 의례를 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기미(機微)는 의례 현장 상황의 망박(忙迫, 바쁨)이나 조용함[從容, 한가함]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기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례 설행의 시대적 배경 등은 넓은 개념이다. 수록재는 대체로 일주야(7일)에 걸쳐 설행되며 다양한 성증을 청해 모신다. 그렇지만 그렇게 설행하지 못할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의례를 설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것은 의례의문을 새로 편집해야 할 당위성으로 귀결된다.

그런 연유들로 해서 ‘신편의문’들이 등장하게 된다. 신편(新編)이라고 할 때 ‘신편’은 의례 순서나 축약(縮約)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신편과 더불어 또 하나의 방식은 ‘의례의 요점만을 모으거나(纂) 취하여(撮) 요점 위주 의문을 생성하는 것이다.’¹⁾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의 의례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으므로 현재 한국불교 대부분의 수록재에서는 수록의문에 <영산작법>이 합편된 의문으로²⁾ 설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례 설행 배경이 의문 편찬의 기미가 되는 것이다.

가령 한국불교 전통수록의문인 『결수문』·『중례문』·『지반문』³⁾의 작법절차를 해설하는 『영산대회작법절차』나 『범음산보집』 등의 세부 주석이 동일하지만 않고, 설행되는 수록재 또한 유사하지만 조금

1) 이성운(2015), 431.

2) 이성운(2015), 436. 의례자체를 지칭할 때는 ‘< >’로 책자 의문을 지칭할 때는 ‘『 』’로 표기한다.

3) 『결수문』, BR1, 621~649; 『중례문』, BR2, 215~250; 『지반문』, BR1, 573~620.

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런 까닭에 여전히 ‘의례의 절차나 순서가 조례 있게 정리되어’⁴⁾야 할 상황이[機微] 발생하게 된다. 경제어산을 전승하고 있는 경제어산전승보존회·경제어산연구소 또한 이와 같은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제사(諸師)의 견해와 의례 현실을 참작하여 새로 수록의문(水陸儀文) 『전통수륙재 중례문』⁵⁾과 『전통수륙재 결수문』⁶⁾(두 의문을 『경산중례』와 『경산결수』라고 약칭하고 ‘경산본’⁷⁾이라 지칭한다)을 편찬해놓고 있다.

이 글은 ‘경산본’ 수록의문의 편찬당위와 그 특징 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 한국불교 수록의문 편찬의 간략한 역사를 일별하고, 경산본을 편찬을 위해 참고하는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 의문의 고유한 법식, 의문에 담고 있는 주해 등에 대한 사례와 인식, 사례 향후 바람직한 수록재를 위해 남겨진 과제 등을 작은 주제로 삼아 문헌과 제방의 의견 등을 글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I. 의문을 짓다

먼저 중국과 한국불교의 수록의문 편찬 노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6세기 초 양무제에 의해 육도사생(六道四生)을 건지기 위해 수록재의 원형적 의례인 무차대회(無遮大會)가 개설되었으며,⁸⁾ 7세기 후반 서경의 법해사 도영 스님이 오나라 의제 스님으로부터 의문을 얻었다고⁹⁾ 한다. 그렇지만 당시의 의문(儀文)이 어떤 것인지 전해지

4) 金春明(1988), 서문.

5) 경제어산연구소 편(2016), 1-177.

6) 전통수륙의문편집위원회 편(2016), 1-120.

7) ‘경산본’은 서울시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 원명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제어산전승보존회·경제어산연구소(소장 정오)에서 2016.8.25일 1차 발표한 수록의문과 차후 간행될 본에 대해 편의상 부여한 명칭이다.

8) 戴曉雲(2014), 484~487.

지 않고 있다. 현재 남겨진 수륙의문은 대개 11세기경부터 송나라 때 편찬되고 후대에 복각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륙의문 편찬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양약(楊鏐)은 1070년경 「천지명양수륙의문」 3권을 편찬하였고,⁹⁾ 소식(蘇軾, 1036~1101)은 「수륙법상찬」을 증술하고 후에 「미산수륙(眉山水陸)」이라고 하였으며, 1096년 종색(宗隲)은 제가(諸家)의 의문을 상정(詳定)하여 『수륙의문』 4권으로 완성하였다.¹¹⁾ 1150년 금나라 자기(仔夔)에 의해 『천지명양수륙의문』이 찬집되는데,¹²⁾ 이 의문은 양약의 그것과 더불어 북수륙의례로 분류되고, 1270년 『불조통기』의 저자 지반(志磐)에 의해 찬집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6권은 남수륙으로 분류된다.¹³⁾

수륙재를 남·북수륙으로 나누는 것은 명대인데, 강절지간(江浙之間)에서 남송 지반의 『수륙신의』로 사명에서 거행된 것을 ‘남수륙’이라고 하고, 금산에서 행해지던 예전의례를 ‘북수륙’이라고 불렀던 데서 출발한다.¹⁴⁾ 『천지명양수륙의문』과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로 대표되는 남북수륙의 순서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차이의 하나는 ‘오로단의식’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¹⁵⁾ 명말 주굉(祿宏, 1532~1612)은 북수륙을 따르지 않고 남수륙을 거듭 바로잡았고, 청 의윤(儀潤)은 주굉의 뜻을 이어 『법계성범수륙보도대재의례회본』 6권을

9) 中國佛教協會編(1989), 383.

10) 송일기·한지희(2009), 119.

11) 中國佛教協會編(1989), 383.

12) 송일기·한지희(2009), 123; 鄭明熙(2013), 30. 이 의문에 대해서는 중국불교 의례관련 연구자들이 다루는 경우를 보기는 쉽지 않다.

13) 송일기·한지희(2009), 119~127; 鄭明熙(2013), 30.

14) 中國佛教協會編(1989), 385.

15) 양약의 『천지명양수륙의문』에는 開五方儀篇이 없으나 자기가 찬한 『천지명양수륙의문』에는 18편에 편제되어 있다. 송일기·한지희(2009), 134. 현재 중국불교 수륙재 연구자들이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었다. 이후 지관(咫觀)이 주평의 의례를 상세하게 증보하여, 현행 중국수륙법회의 법칙이 되었다.¹⁶⁾ 1924년 인광은 『수륙의례회본』을 중각하였는데, 현재 대만 등지의 불교에서 행해지는 수륙재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중국불교 수륙재의문의 찬술 약사나 남겨진 수륙의문들로 볼 때 수륙의문은 시대를 격해오면서 끊임없이 제술(制述)되거나 산보(刪補)되고, 논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불교 수륙재의문 편찬약사는 어떠한가. 『고려사』 등의 기록과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최사겸이 1090년경 송에서 수륙의문을 구해온다.¹⁷⁾ 이 의문은 간기 상으로 볼 때 양악의 수륙의문일 확률이 높다. 이후 12세기 중반 남송시대 금나라 자기에 의해 찬집된 『천지명양수륙의문』 3권 또한 국내에 곧바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문은 국내에서 수차례 간행된다.¹⁸⁾ 11세기말 이후 12세기 중엽까지 약 60여 년을 격하며 중국불교 수륙의문이 국내에 유입되었다고 보인다. 14세기 초반에 이르면 수륙의문의 국내 편집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연의 제자 혼구(混丘, 1251-1322)의 『신편수륙의문』 2권이 그것이다.¹⁹⁾ 혼구의 의문이 편찬된 시기에는 양악과 자기의 『천지명양수륙의문』이 국내에 유입돼 있었고, 지반의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가 편찬된 이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추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후 국내에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1342)나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등이 편찬되기 시작한다. 이 두 권의 수륙의문은 『중례문』과 『결수문』, ‘중례’나 ‘소례’ 등으로 약칭되며²⁰⁾ 『지반문』(『법계성범

16) 中國佛教協會編(1989), 385~386.

17) 고상현(2011), 8.

18) 송일기·한지희(2009), 123.

19) 이제현(1342), 『동문선』 권118.

20) 이성운(2016), 280~283.

수륙승회수재의례』의 국내 유통본)과 더불어 국내 수륙의문의 핵심 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 지역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간행되었다.²¹⁾ 국내에서 간행된 수종의 수륙의문 또한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대개 후대의 복각본이다. 인수대비 <중간불서목록>에 의하면²²⁾ 15세기 후반에,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중례문』, 『결수문』, 『자기문』, 『지반문』, 『배비문』 등이 유통되고 있다.

15세기 말 『진언권공』(1496)은 한국불교 수륙재의 실행 양태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인데, 『진언권공』·『작법절차』·『삼단시식문』이 합편되어 있다. 『진언권공』은 불법승 삼보께 진언에 의지하여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변공의식이 『결수문』의 그것과 같다. 『작법절차』는 다양한 경전을 염송하는 ‘법석’의식을 행할 때의 삼보를 청하는 의식이다. 『삼단시식문』은 개계로 시작되는 수륙재의식문으로 『결수문』과 같은 삼보소청을 보이고 있다.

17세기 초반에 위의 『작법절차』가 확대된 『영산대회작법절차』(1613, 1636)가 등장한다. 이는 영산법석, 다시 말해 법화법석이 <작법절차>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³⁾ 이 의문에는 수륙재의 절차에 대한 의견이 있다. 『진언권공』 <작법절차>의 그것과 달리 <영산작법> 이후 <분수작법>을 설행한 다음 수륙의문의 절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소례결수작법절차> <중례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 이후에 <성도작법절차>의 순서이다. 이는 수륙재의 실행의문인 소례와 중례와 대례의 『지반문』 순서로 편집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 의문의 협주 분량으로 볼 때 『중례문』에 비중을 더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산작법절차』 이후 『오종범음집』(1661), 『천지명양수륙재의범

21) 우진웅(2011), 361~362.

22) 김두중(1973), 173~174.

23) 이성운(2015), 425~430.

음산보집』(보림사, 1707, 중흥사 1723, 이하 『범음산보집』), 『산보범음집』(보현사, 1713) 등이 편찬되는데, 이는 수록재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범음산보집』에는 <중례작법절차>를 <재후작법절차>라 하여 <결수작법>에 선행하고 있다. 『산보범음집』에도 <중례>·<지반>·<결수작법절차>의 순서로 편제한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다.

이후 ‘범음집’ 혹은 ‘제반문’, 혹은 『작법귀감』(1826)과 같은 ‘작법’ 또는 ‘요집’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의문이 술하게 필사되거나 편집된다. 이와 같은 의문들을 종합의례서일 뿐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편집순서를 보면 의미 있는 정보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법’이나 ‘요집’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유형의 의문은 상주권공·관음청·칠성청 등의 ‘공양의식’이 선두에 편제된 ‘공양의례’라고 할 수 있고; ‘제반문’이나 ‘범음집’의 명칭을 달고 있는 의문은 시왕청·재대령 이전의 시주이운의식부터 편제된 ‘시식의례’라고 할 수 있다²⁴⁾는 것이다.

20세기 이후에는 『석문의범』(1935) 같은 종합의례서적인 성격의 의문이 출현하며, 수록재 또한 한 편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 한국불교 수록재는 전승된 의문 혹은 『석문의범』 소수 수록의문을 바탕으로 설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전북불교연합회(이하 전불련)에서 『권공각배영산의문』·『수륙의문』·『예수의문』·『점안의문』 등 필사의문을 등사하여 보급하였고, 영산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수록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2000년대에 들어와 몇 곳에서 수록재가 설행되며, 의문이 편집되고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설행되고 있는 수록의문은 대체로 『결수문』과 『중례문』을 저본으로 하고 영산이 합편된 의문인데, 수록의문에 <영산작법>이 합편된 연유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므로²⁵⁾ 이 글에서는

24) 이성운(2016), 275~276.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륙재의문 편찬을 간략히 살폈다. 중국에서 성립된 수륙의문을 바탕으로 국내 의문이 편찬되었다고 할 때 한국불교 수륙재의문의 계통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수문』과 『중례문』의 <설회인유편>이나 봉송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볼 때 원본으로 추정되는 양약과 자기가 찬한 수륙의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기의 수륙의문에서 『중례문』이 찬요되었다고 보면 북수륙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남수륙 계통인 『지반문』도 오로단을 편입하고 있어 어느 계통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우며, 설단형태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²⁶⁾

II. 견해를 듣다

새로 의문을 편찬하고자 하면 그에 대한 견해(見解)를 널리 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지만 견해를 듣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남겨진 문헌을 해독하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둘째는 의례를 담지하고 있는 어장 등 의례 승려들이 윗대로부터 전수받은 전승된 의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수집하는 것이 있다. 한국불교의례학의 시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김월운(1991)의 『일용의식수문기(日用儀式隨聞記)』의 편찬 방식이 -때때로 들은 것만을 적는 것- 이를 증명한다. 해서 일차적으로 의례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 다음은 전승받은 의례자료, 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토대로 논의를 하여 차서와 의미를 정해 새롭게 의문을 편집하고 교정하며 주해를 하는 것이다.

25) 이성운(2015), 417~449.

26) 연제영은 설단 형태에 따라 남북수륙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삼화사 진관사 백운사의 수륙재를 남수륙계통이라고 보고 있다. 延濟永(2014), 169.

이 같은 방법에 의거해 의문을 편집하려면 다양한 불교의례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다행히도 현재 한국불교에는 박세민(1993)에 의해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가 간행·보급되어 있다. 이 총서에는 74편의 한국불교 의례자료가 집성되어 있다. 또 《대장신찬만속장경(大藏新纂卍續藏經)》 등에는 수종의 수록법회의례들이 전재되어 있어 다양한 견해들을 얻어 듣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범음산보집』이나 『산보범음집』과 같은 의례 문헌에는 의례를 잘 아는 ‘고덕’의 견해에 따르는 장면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범음을 아는 이가 회주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엎드려 묻는다. ‘작법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회주는 명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명하고 없으면 ‘사례에 의지해 하라.’고 말한다. 범음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물러간다.”²⁷⁾ 이 사례는 당일 재회의 규모, 재물의 대소 규모에 따라 의문이 선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²⁸⁾

의례 문헌에 의거하여 제사(諸師)의 견해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산본은 어떤 견해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07, 『한국불교전서』11 이하 한불전이라 한다.), 『산보범음집』(1713, 의총2), 『오종범음집』(1661, 한불전 12), 『영산대회작법절차』(1634, 의총2), 『석문의범』(1935)의 제시 순서에 의거해 적합성을 살펴 산보하는 것을 원칙으로”라고 일러두기에서 견해 수용의 순서를 천명하고 있다. 의지하고자 하는 의문과 견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이 한 눈에 확인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하나는 가까운 시기부터 의지하고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록의문이 우선하며, 종합의례서적의 유형은 그

27) 보현사(1713), 581. “知梵音 趨進會主前 拜伏云 “作法何以爲之” 會主如有可命之事命之無則云 ‘依例爲之’ 梵音 唯唯而退.”

28) 이성운(2015), 432 및 주55.

다음 순서로 의지하고자 하는 견해의 순서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에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놓았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연유일 것이고, ‘수록’과 ‘작법’ 의문의 순서는 두 의문이 수록재와 영산재로 발전한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또 현대에 가깝다고 하지만 『석문의범』의 경우는 종합의례서로서 협주 등이 극히 미미하고 수록재회 설행이 급격히 줄어들어 드는 시기에 의문만을 편집해 놓은 것이라 그리 방침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록의문을 편집함에 있어 문헌에 제시된 견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편집자들의 견해이다. 경산본 편찬을 주도한 동주 원명은 경제어산 보유자이고, 혜천 정오는 전수조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두 편자는 이전, 영산재 이수자로서 영산재 보유자였던 송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차 ‘경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산중례』와 『경산결수』에는 제사의 견해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이것은 여타 수록의문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날 수 있다. 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화사·진관사²⁹⁾·백운사 등 세 곳의 수록의문과 전불연의 의문을 그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경산본은 『범음산보집』이나 『산보범음집』 등의 주석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이 편집체제에서 쉽게 드러나고 있다. 여타 본을 보면 이렇다. 『중례문』에 의거하여 편찬된 삼화사 의문은 ‘설회인유편 제일’ 이전에 시련·대령·조건점안·신중작법·괘불이운 의식을 설행한 다음 건회소와 쇄수결계의식으로 할향부터 고향계까지를 하고 있다. 진관사 의문은 『결수문』을 저본으로 편찬되었다고 보이지만 ‘수록연기편’을 초두에 추가 편입하였고, 하위소청은 중례문을 따르고 있는 등 저본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백운사 의문인 『수록재어

29) 삼화사와 진관사 의문은 대한불교조계종 의례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 제출된 의문으로 이하 네 곳의 의문 인용은 별도의 쪽수를 표시하지 않는다.

산집』은 설회인유편을 보면 『결수문』을 저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대령·하위고혼청·삼신이운·백사위창불·각단권공·영반·관육·조전점안·설주이운·거량·화청·건회소·영산작법을 시설한 다음 설회인유편을 시작하고 있다.³⁰⁾ 전불연 『수륙의문』도 『결수문』을 근거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시련·대령·괘불이운·건회소·운수상단·개계소를 한 다음에 설회인유편으로 들어가고 있다.³¹⁾ 이에 반해 경산본 『경산중례』와 『경산결수』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제목 바로 다음에 건회소·할향 등 삼지심과 개계소를 한 다음 합장계와 고향계를 하고 설회인유편으로 들어간다. 이는 『범음산보집』이나 『영산대회작법절차』 등의 세부 항목인 <중례작법절차>나 <소례결수작법절차>에서 제시한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산본은 동일하지 않은 견해를 수용함에 현실을 바탕으로 한 논리성을 개발하여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양의 식과 그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결수문』이나 『중례문』은 상위에서부터 중위·하위 등을 모두 청한 다음에 상위와 중위에 공양하고, 하위에 시식을 한다. 그런데 경산본을 보면 『경산결수』에서는 의문과 주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산중례』에서는 상위와 중위의 존재들에게 좌석에 모신 다음 곧바로 공양을 올리고 있다. 이는 『중례문』의 편제나 주석을 따르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진관사의 의문도 이렇지만 2010년 불교무형유산 일체조사 때의 실행 양태는 제시된 의문과 달리 상단 현좌를 마치고 예경을 드린 다음 곧바로 공양을 올리는데, 사다라니로 공양을 올리고 있다.³²⁾ 원본을 충실히 따랐다고 할 수도 있고, 현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30) 石峰(2012), 1前~74後.

31) 金春明(1988), 1~8.

32)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부(2010), 278~279.

데, 중위소청은 삼청이 아닌 도청으로, 하위소청은 『중례문』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일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경산본은 문헌이나 전승에 의례에 관한 학문적 견해들을 폭넓게 수용하여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의례는 실행위주이므로 의례학문의 대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의례가 학문의 대상으로 되기 어려운 개연성은 적지 않다. 그 까닭은 실용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³³⁾ 신앙을 바탕으로 설행되며 현재적이므로 의례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설령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되지도 못하거나 거부 또는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는 진언권공의 변공(變供)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수문』은 상위의 삼보와 천선에게 공양을 올리는 변공의식은 정법계진언과 변식진언·출생공양진언과 헌공진언 등이 활용된다. 이는 『지반문』에서 변식진언과 감로수진언이 활용되는 것과 또 다르다. 같은 『결수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백운사나 전불연 의문은 사다라니를 시설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가 제기되었으며,³⁴⁾ 『경산결수』에는 원본 『결수문』의 변공행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관사 의문도 이 점은 같다.

해서 『경산중례』와 『경산결수』의 경산본에는 전승문헌이 들려주는 견해와 현실 의례상황, 또 의례에 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려는, 비교적 열린 사고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33) 이는 마치 인간 사이의 긴장 관계가 상실한 문서를 고문서라고 하여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허홍식(1988), 15.

34) 이성운(2012), 187~188; 이성운(2013), 278.

Ⅲ. 법식을 짜다

법식(法式)을 짜는 경산본의 원칙은 두 의문이 바탕하고 있는 ‘찬요’(『중례문』)와 ‘촬요’(『결수문』)의 형태를 보완하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요점만으로 의례를 봉행하는 한계를 보완해야 하므로 계송이나 소문(疏文) 등을 삽입하는 데서부터 편집은 시작된다. 소문이나 방문(榜文) 등은 『천지명양수륙잡문』에 실려 있지만 의례를 진행하는 데 편리하도록 『중례문』·『결수문』·『지반문』 등의 본문 속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영산대회작법절차』나 주요 범음집에는 『중례문』이나 『결수문』 또는 『지반문』 등의 본문은 표시하지 않고 그곳에 없는 실행에 필요한 지문이나 의문만을 제시할 뿐, 소문이나 방문은 별도로 실지 않고 있다. 해서 현행 대개의 수록의 문은 빠진 것을 모두 삽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산본 또한 다르지 않다.

먼저 『중례문』과 『결수문』에 대해 보도록 한다. 고려 죽암이 찬한 『중례문』과 송대 양악과 자기의 『천지명양수륙의문』 목차를 비교해 보면³⁵⁾ 『중례문』은 금의 자기가 찬한 『천지명양수륙의문』에서 주로 요점을 뽑았다고 보인다. 또 51편 양악본과 100편 자기본의 편명은 이를 더욱 확신하게 해준다. 양악본은 ‘성전개계의’라고 편명에 ‘의’(儀)를 취하고 있으나 자기본은 죽암의 『중례문』과 같이 편명을 ‘편’(篇)으로 나누고 있다. 요점을 뽑을 때 조금이라도 후대 본에서 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라고 하는 『결수문』의 원본은 알려지지 않았다.³⁶⁾ 원본에서 요점을 뽑는 경우가 아니고는 완전히

35) 송일기·한지희(2009), 134~136.

새롭게 편제하므로 신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산중례』와 『경산결수』는 저본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신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까닭에 그 법식은 기본적으로 저본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경산본이 여타 수록의문의 그것과 달리 보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경산중례』의 경우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삼단의식으로 진행되는 수록재의 특성상 상위와 중위를 소칭해서 모시고 곧바로 공양을 올린다. 그렇게 되어 원본 『중례문』과는 편의 번호가 일부 달라졌다. 해서 “중례문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BR2, 225)에는 상위·중위·하위를 소칭하고 상위 공양을 올리므로 (『결수문』도 이와 같다.) 찬례삼보편 제15 이후에 소칭중위편 제16이 이어지지만 각위를 소칭하고 관육한 다음 바로 공양을 올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위공양편인 기성가지편 제30이 제15가 되고 있다.”³⁷⁾라는 주석을 부가하고 있다. 이 점은 삼화사 의문이 별도의 주석 없이 상위 공양의 식인 가지변공을 편제하고 편명번호를 임의로 삭제하고 있는 자세와는 다르다. 또 백운사 의문이나 전불연 『수륙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부터 편명 번호를 넣지 않고 있는 것과도 변별된다. 또 『경산결수』 또한 『결수문』의 35편 편명 번호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결수문』은 편명은 37편이지만 개벽오방편과 오제의 안위공양편은 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경산결수』에서는 빠진 두 편명의 번호를 별도로 부가하지 않고 직전의 소칭사자의식 가운데 ‘봉송사자편제팔’에서 편명번호 ‘제팔’을 ‘개벽오방편’으로 옮겨 오방오제의식의 독립성을 배가하였다. 이 오로단의식은 남수륙 계통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북수륙 계통의

36) 『중례문』의 저본이 楊鏞의 『天地冥陽水陸儀文』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데 비해 『결수문』은 정확한 저본을 확정하기 어렵다.

37) 경제어산연구소 편(2016), 63.

고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수문』에서 삽입되면서 어찌하여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지 알 길이 없다.

둘째, 『중례문』의 오방오제에 대한 찬탄이 삼화사나 진관사 의문 등에는 후반 구절이 탈락된 채 편집돼 있지만 『경산중례』에는 후반구절을 완전히 살리고 해석까지 곁들여 의미를 배가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이는 앞 장에서 언급한 새로운 견해의 수용으로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이 오방찬 구문은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의 역서들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했다. 김순미는 삼화사 의문처럼 전반 구절만 번역하고, 후반구절은 원문만 제시하고 있고,³⁸⁾ 김두재는 전반 구절과 후반 구절을 나누어 번역하고 있다.³⁹⁾ 이 관점은 『부여백제수록재의문』⁴⁰⁾에서 전후반 구문이 해석되어 제시된 것을 적극 재수용하여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산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편집상 특징은 ‘창혼의’와 같이 ‘의’(儀)라는, 편목에 상응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의문의 편명과 번호를 중시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록재회를 열기 위해 사자나 오제를 청해 먼저 공양을 올리고 부탁을 한다. 이때 공양의식으로 오공양이 펼쳐진다. 이는 안위공양편 산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언권공으로 행하게 되어 이를 ‘진언권공의’라고 하고 있다. 또 목욕을 마치고 성인께 예경을 드리기에 앞서 목욕을 마친 다음 간단하게 차를 한 잔 올릴 때의 ‘혈욕의’를 정리하고 있다. 또 청한 하위의 존재들을 연이어 불러 마쳤을 때 당해 설판재자와 동참재자들의 영가를 부르기 위해 ‘창혼의’(唱魂儀)를 시설하고 있다. 중복적이라고 보이지만 청사를 개변(改變)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38) 김순미(2011), 78.

39) 김두재 옮김(2012), 132~135.

40) 부여백제수록재의문편찬위원회 편(2015), 95~97.

싶다. 성현께 인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기 직전의 ‘퇴귀명연의(退歸冥筵儀)’도 시설되었다. 또 시식을 마치고 봉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염불을 하여 극락왕생을 조력하는 장엄염불 의식을 ‘정토업의(淨土業儀)’라고 칭제하고 있다.⁴¹⁾ 회향의식과 화재수용의식, 봉송육도 의식을 좀 더 넓게 ‘봉송의(奉送儀)’라고 칭제하거나 『경산결수』의 ‘삼단헌공의’에도 이 같은 관점이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넷째, 의례 순서를 교정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점이다. 도량을 쇄수하여 정화한 다음 행하는 개단진언·건단진언의 순서는 『결수문』의 순서이지만 『중례문』과 『지반문』에 의거하여 건단진언·개단진언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또 건단과 개단에 앞서 관음보살을 청하여 감로수를 빌어 그것을 도량의 사방에 뿌려 도량을 정화하고 도량을 찬탄한다. 이어 참회를 통해 도량에 참여하는 재자들을 정화함으로써 도량엄정을 완성하는 구조로 수록재가 선행된다. 이때 재자의 정화를 위해 연비(燃臂)를 하는데, ‘범음집’들에는 연비와 참회게송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참회진언을 무수히 염송하므로 참회게송과 귀명례삼보 사이에 참회진언 제목 없이 진언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교의 참회게, 밀교의 진언으로 참회를 마치고 ‘참회이귀명례삼보’하며 마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다섯째, 경산본에는 의례설행 주체들이 편찬한 의문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신묘장구다라니 삼편 염송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대중이 앉아서 합송하는 두 편과 바라를 추며 동음 창화하는 천수주를 별도로 시설하고 있다. 이는 실제 의례 설행을 염두에 둔 점이라고 하겠다. 또 내림계 태징을 칠 때 청하는 의식의 순서이다. 청사를 하며 ‘원강도량 수차공양’과 동시에 행해지며 대중이 향화청 삼설을 받는데, 천부 선부 신부 삼청

41) 백파공선(1827), 564중, ‘정토업’이라는 칭제가 보임.

으로 행해지는 중위소청의 천부 소청에는 대중이 향화청을 이설(二說)할 때 ‘원강도량 수차공양’을 한 다음, 산화락을 삼설(三說)하고 내림게 태징을 치며 마지막 향화청을 받는 형식으로 정형화하였다. 진관사 의문에는 향화청·산화락·원강도량 수차공양 이후 가영을 받고 있는 등 유통 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의식의 특별한 원칙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유원 모모 강림도량’을 염송할 무렵 꽃을 뿌리며 맞이하는 의식으로, ‘향화청’ 하고 소리하며 꽃을 뿌려 떨어지니 ‘산화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향화청과 산화락, ‘원강도량 수차공양’의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이 함께 의례를 봉행하지 못할 때라면 정형화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경산본에서 분명하게 변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도청사와 삼청사의 확실한 구별이다. ‘중례’와 ‘소례’는 예경하는 성현이나 소청하는 영혼들을 함께 청하느냐, 나누어서 청하느냐의 차이로 구분된다. 소례 『결수문』에는 상위·중위·하위 모두 도청이다. 함께 청해 버린다. 하지만 『중례문』에 이르면, 상위는 진여불보·심신법보·청정승보를 나누어 청한다. 중위 역시 천도등중, 신도등중, 명도등중의 셋으로 나누어 소청한다. 하지만 대례의 『지반문』에 의하면 상위 17청 혹은 삼보도청이고, 중위는 28청, 하위는 증명청 포함 25위청이다. 하위청은 『중례문』도 같다.⁴²⁾ 여기서 『결수문』은 도청이고 『중례문』은 삼보청인데도 대개는 불보청의 가영이 쓰이고 있다.⁴³⁾ 삼보를 함께 청하였으니 함께 찬탄하며 맞이하는 것이 옳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도청사로 청하는 중단의 가영도 마찬가지이다.⁴⁴⁾ 경산본에

42) 『지반문』(BR1, 575~620); 『중례문』(BR2, 217~249); 『결수문』(BR1, 623~648); 이성운(2015), 434, 주 58.

43)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부(2010), 277. ‘佛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體同, 廣大願雲恒不盡, 汪洋覺海妙難窮’

는 『산보범음집』에 의거하여 도청사의 경우에는 삼보와 삼신을 통합한 삼보 도가영(都歌詠)을 시설하였다. 도가영은 네 구에 삼보와 삼신의 찬탄을 모두 담고 있다. 삼보 도가영은 ‘위광편조시방중(威光遍照十方中), 월인천강일체동(月印千江一體同), 사지원명제상사(四智圓明諸上士), 비림법회이군생(賁臨法會利群生): 위신의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취 천강에 비친 달은 본래 하나 네 지혜 두루 밝은 상사들은 법회에 임해 중생을 이롭게 하시네.’이다. 위광이 시방에 비침은 불보의 찬탄이고 일천 강에 달 빛 비침은 한 몸과 같은 것은 법보의 같음이고, 사지가 원명한 여러 상사들은 승보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 삼보가 법회에 내려와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동아시아 불교의례는 현밀의궤(顯密儀軌)로 구성된다. 현교의 표백(表白)이나 계송(偈頌)에 밀교의 진언을 더하는 방법이다. 거기에도 본문의 표백에서 ‘다음에 계송이나 진언이 있다’거나 ‘하라’는 “하유안좌지계” 등의 지문이 등장한다. 이때 계송과 진언이 연이어 나타날 때 ‘지계(之偈)’라고 하는 의문 ‘계주(偈呪)’라고 개변하여 ‘계송과 진언을 있다거나 하라’는 것으로 교정한 다음 계송과 진언의 제목을 삭제하고 있다. 진언의 제목을 드러낼 때는 본문으로 표백을 하지 않을 때이기도 한 것을 기준 삼았다. 하나 『경산결수』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곳에 결인법과 수인도가 서술되고 있어 제목을 적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여덟째, 각 단에 공양을 올린 이후 화청 또는 정근과 축원을 편제하여 현실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상단에 축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한국불교에서 좀 고뇌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언어학적으로나 의례적으로 ‘푸자’라는 말은 원래 신들에게 물과 꽃 향 같은 것을 공양하며 경의를 나타내는 의식으로⁴⁵⁾

44)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부(2010), 285.

절대 귀명을 하므로 마치 조건부적인 축원보다 발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해서 상단에 공양하고 중단에 퇴공하여 축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창불(唱佛) 의식 또한 삼보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성현들을 청하여 공양하고 불사 옹호를 빌고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결수문』은 수인을 맺는 인법이 설명되어 『결수문』이다. 『결수문』을 저본으로 편찬된 진관사본이나 백운사 본 등에는 결인법도 수인도도 신지 않고 있지만 『경산결수』에는 모두 신고 있다. 이는 법식을 짚어 있어 원본을 충실히 따르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IV. 주해를 내다

한국불교 의례의문에 주석(註釋)이나 해설(解說)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19세기 후반 필사본들이 등장하는 때가 아닐까 한다. 필사본에 지문 등을 신지 않은 까닭은 필사본의 목적은 의문의 대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협주들은 건기 이작이나 설행에 대한 설명이므로 의례를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인다. 필사나 판각에서 주석이 많게 되면 번거롭고 비용만 다대하게 발생하니, 이미 다 아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례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제의 사찰령(1911)과 그 본말사법 7장 법식에 따라 범패 작법 화청 등이 금지되어⁴⁵⁾ 대형 수록재 같은 의례의 설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의례전승이 사라지면서, 각기 다른 견해와 인식이 충돌하게 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45) 中村元 著, 金知見 譯(2011), 73.

46) 이능화(1918)·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2010), 454.

이전에도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되는 장면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7세기 중엽 지선(智禪)은 제사의 이설을 모아 교감하여 『오중범음집』(1661)을 편찬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합장계의 교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대회작법절차』의 합장계송은 ‘합장이위화(合掌以爲花) 신위공양구(身爲供養具) 성심진실향(誠心眞實香) 찬탄향연부(讚歎香烟覆): 두 손 모으니 꽃이 되고, 몸은 공양구가 되네. 정성과 진실에서 나오는 향이로세. 향 연기 세계를 덮음을 찬탄하도다.’인데, 삼구의 말언 ‘향(香)’자를 ‘상(相)’자로 교정하며 “대철 스님이 ‘진실향의 향자는 실상의 상을 지칭한다’고 하였고, (지)환 스님의 요집에 ‘육진을 범하지 않고 신근이 청정해야 진실한 법공양으로 실상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적합하므로 거기에 ‘상’(相)자를 쓴다”⁴⁷⁾고 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자를 교정하면, 합장계송의 본의에는 적합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기서 향은 두 손을 모아 피어낸 연꽃에서 피어난다. ‘미부련합장(未敷蓮合掌), 초할연합장(初割蓮合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손을 모아 연꽃을 피어내니, 이 몸은 공양구가 되는 것이다. 두 손, 몸에 이어 마음이 진실하면 두 손 모아 이룬 연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다. 그 향기가 삼천세계를 덮는다. 그래야만 일체 삼보에게 법회에 청하는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장계 다음에 고향계(信香偈라고도 함)를 아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자체가, 진심이 실상에 부합해야 법공양이 된다는 것은 백 번 옳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합장계의 순수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사상만 남게 된다. 두 손을 모아 연꽃이 되고 내한 몸은 공양구가 되었다. 그것은 외면이다. 성심과 진실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꽃향기야말로 만 리 향이 되어 일체의 삼보에게 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⁸⁾

47) 智禪 撰(1661), 159중.

『석문의범』에는 정법계진언을 염송할 때 하는 ‘육건만나라선송 정법계진언 움 람’에서 ‘육건만나라선송’을 해석문구이지 진언문구가 아니라고 하며 괄호를 치고 정문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⁴⁹⁾ 하지만 범패에 육건이 소리가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육건만나라선송정법계진언’은 법주가 대중에게 정법계진언을 염송하라는 지시어이다. 『석문의범』은 이언(俚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지금은 의문 수지가 쉽지만 예전에는 소수의 어장들에게만 의문이 소유되었다. 해서 대중은 진언이나 소리 등을 익혀 지시어에 따라 염송하거나 소리를 했다. 그러므로 지시어가 정문이 아니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또 진언문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목 정법계진언도 진언문구라고 할 수는 없다. 『선문일송』의 <몽산시식> 등을 보면 진언명칭을 진언 끝에 작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⁰⁾ 현재 한국불교에서 진언제목은 염송하고 계송 제목은 염송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고, 모든 제목을 염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서 그와 같은 견해나 주석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겠다.

『경산중례』와 『경산결수』에는 다소의 중복은 있지만 127곳과 105곳에 각주를 내고 있다. 그 유형은 대체로 새롭게 편찬한 근거를 밝히거나 편집 의도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 근거는 일러두기에서 밝힌 다섯 의문에 의지하거나 편집자의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또 의례 실행과 관련한 해설을, 출전 의례에서 추출해 원문과 함께 혹은 별도로 30여 곳에 실고 있다. 이는 실행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통수륙재의 원형을 밝히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수륙재의 원형을 찾으려면 일차적으로 원전 의문과 원

48) 이성운(2013), <불교의례의 미학(2): 합장으로 올리는 꽃 공양>, <법보신문>(2013.1.23.일자).

49) 안진호(1935), 2.

50) 『禪門日誦』, 74~79.

형태를 찾아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원전을 구성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고 판본의 자획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고, 또 판각 과정에 와전이 일어나고 오자가 발생하곤 하므로 완벽한 의례의문의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감(校勘)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문의 판본이 수집·확보돼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합장계에 대해 ‘범음집’의 교정을 따르지 않고 『영산대회작법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산본은 안위공양편 풍경안좌 때 반야심경 염송에 대해 ‘자리에 앉는 동안의 이동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오공양의 유원구절 ‘애강도량’(哀降道場)은 이미 도량에 와서 자리에 앉아 공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중시하여 『산보범음집』의 사례를 따라 “애감단성(哀鑑丹誠) 수차공양(受此供養)”이라고 각주와 함께 교정하고 있다. 또 『경산중례』와 『경산결수』에는 하위 안좌의 대상에 대해 『범음산보집』을 따라 ‘망령’과 ‘선령’(仙靈)으로 구분하고 있다.

저본은 분명하지만 의미상 저본을 교정하는 것이 적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교정한 예로 찬례삼보편의 ‘공월’(空月)과 ‘강월’(江月)이 있다. 『결수문』에는 ‘강월’이 분명하지만 『중례문』의 ‘공월’을 취했다. 『결수문』에는 ‘강월서휘’(江月舒輝)라고 하고 있고, 『중례문』은 ‘공월등휘’(空月騰輝)라고 하고 있는데, 강의 달은 퍼서 빛나고, 허공의 달은 솟아올라 빛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음에서 수식을 받는 구절인 ‘무유불촉’(無幽不燭)을 보면 ‘강월’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 의문과 『경산중례』와 『경산결수』의 주해는 이 정도로 마감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수록재와 수록의문의 완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結. 과제를 안다

수륙재 의문이 신편 되어야 하는 기미나 각 의문들의 주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륙재의 대본인 의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여타 수륙재 의문들에는 시련·대령·관육·신중작법 등을 수륙재 선행 의례 또는 ‘별의례’⁵¹⁾라고 하며 수륙재 설행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산본은 순수 수륙재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널리 행해지고 있는 시련의식을 보면 시식이나 제사를 올릴 당해 영가(사실상 선왕선후의 혼령인 仙靈)를 일주문 밖에서 수륙재장으로 모셔오는 의식이라고 보이는데, 시련의식 옹호계의 내용만을 맹신한 나머지 옹호성현을 모셔온다고 하고, 또 신중작법은 그분들을 청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시련과 대령이 행해지는 장소를 보면 일주문이나 해탈문 밖에서부터인데 이를 동일한 의례의 차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또 영반을 드릴 영가에게는 별도의 관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육을 한다. 『지반문』에 의하면 신중작법의 예적원만성자 등 성현들은 도량의 결계와 옹호를 위해 수륙재에 청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 일반의 수륙재에서는 사전에 행해지고 있다. 궤불이운 등도 마찬가지이다. 수륙의문의 주석에 의하면 오로단의식이 끝나면 불전으로 나아가고, 중위청이 끝나면 영혼소로 가라는 지문이 제대로 현실에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경산본은 순수한 수륙재 의문을 지향하며 이같이 현재 행해지는 시련·대령·궤불이운 등 수륙재에 선행하는 의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겼다. 넘겼다고 능사가 아님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불교 수륙재에서 이와 같은 의례

51) 延濟永(2014), 139~155.

차서가 형성되었는가. 수록재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리하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재식; 점심] 후에 행하는 수록재가 당일에 행해지면 별도의 영산작법을 봉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록재회에 선행하는 의례 가운데 대령 관육들은 행하면 옥상옥이 된다. 수록재가 7주아에 걸쳐 행해지는 의례였으므로 [주로 『지반문』] 재전에 영산작법을 행하고 재 후에 수록재를 봉행하고 익일 재전에 영산작법을 행하므로 그 도량에 영가를 청해 법문을 듣게 하다 보니 그들을 모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록재만을 하루에 지내야 한다면 『결수문』이나 『중례문』을 택해 시작 시간을 달리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오종범음집』(1661)에 의하면 『결수문』으로 할 때는 오후 네 시에, 『중례문』으로 할 때는 오후 2시에 시작하라고 하는 협주 의견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괘불이나 설주이운 등은 상위청을 할 때 하면 되고, 설주는 영산작법을 하지 않으면 굳이 할 까닭이 보이지 않는다. 신중작법도 엄정팔방에서 쇠정호마다라니로 엄정팔방하는 것에 관음청을 하여 더하고 있는 형식을 유의하면 된다.

둘째, 바람직한 수록재를 봉행하려면 수록의문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록의문은 대개 11세기경 중국에서 성립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14세기경 국내 현실에 맞도록 찬하거나 철회한 의문에, 빠진 소문이나 찬탄 계송들을 보완한 본이 수록재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하위의 고훈을 청할 때 예전의 죽음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어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 시대성이 적거나 수록재 수요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의문만을 고수하면 수록재는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수록재는 한문에 의한 소리이고 회심곡을 할 때만 우리

말이 쓰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말로 번역한 의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통의 소리와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늘소리 범패로 진행되는 의례는, 때로는, 의미 이상으로 대중의 마음에 다가 가고 동참자의 심금을 울린다. 하지만 의문을 해석하여 대중들에게 보급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고 때로는 범패로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낭송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아무튼 의문의 우리말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연구와 노력을 부단히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아울러 의문과 설단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현재 수록제 안에는 예수재가 병설되지 않고 별도로 설행된다. 그렇지만 조전점안 의식이나 시왕청이 존재하고 있다. 중위의 삼신청(三神請)에 천도(天道)와 선도(仙道)와 명도(冥道)의 신중을 청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또 12지신화가 걸리고 있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삼신이나 오방불이 걸릴 때는 그에 걸맞은 청사가 있어야 한다. 또 오방불과 오방의 오제 개념이나 쓰임이 때로는 혼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적지 않다. 문자 그대로 오방의 오제는 길을 여는 작업을 하는 황제이며, 영토적 세계 개념이 투영되어 있다. 정토왕생 신앙에서의 오방불은 왕생의 목적지이자 주관자이다. 하므로 길을 여는 오방 오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략 정리한 네 가지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선행된다면 수록제와 그 의문은 분명한 자태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혹자는 무엇을 그리 안고 있느냐고 타박할지 모르지만 안지 않고는 내 것이 되지 않고 버릴 수도 없다는 강변을 끝으로 글을 닫을까 한다.

<참고문헌>

- BR : 박세민 편(1993),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1~4집, 삼성암.
- 『결수문』, BR1.
- 경제어산연구소 편(2016), 『전통수륙재 중례문』, 경제어산연구소.
- 김두재 옮김(2012),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두중(1973),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 김순미(2011),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양사각.
- 金春明(1988), 『水陸儀文』, 全北佛敎聯合會.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부(2010), 『한국의 수륙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백파공선(1827), 『작법귀감』, 한불전10.
- 보현사(1713), 『新刊刪補梵音集』, BR 2.
- 부여백제수륙재의문편찬위원회 편(2015), 『부여백제수륙재의문』, 부여백제수륙재보존회.
- 『선문일송』(간기미상), 상해불학서국.
- 석봉(2012), 『水陸齋魚山集』, 불모산영산재보존회.
- 안진호(1935), 『석문의범』, 만상회.
- 이능화(1918) ·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2010), 『역주조선불교통사』6,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제현(1342),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 并序」, 『동문선』 권 118.
- 전통수륙의문편집위원회 편(2016), 『전통수륙재 결수문』, 경제어산연구소.
- 中國佛敎協會編(1989), 「中國佛敎儀軌制度」, 『中國佛敎』 2, 上海: 知識出版社.
- 『중례문』, BR2.
- 中村元 著, 金知見 譯(2011), 『佛陀의 世界』, 김영사.
- 『지반문』, BR1.
- 智禪 撰(1661), 「五種梵音集」, 한불전12.
- 허흥식(1988), 『한국의 古文書』, 민음사.
- 고상현(2011),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戴曉雲(2014), 「水陸法會起源和發展再考」, 『敦煌吐魯番研究』第14卷, 上海古籍出版社.
- 송일기·한지희(2009),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서지학연구』제43호, 한국서지학회.
- 延濟永(2014), 『한국수륙재의 의례와 실행양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진웅(2011), 「『水陸無遮平等齋儀最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 한국서지학회.
- 이성운(2012),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 『淨土學研究』제18집, 한국정토학회.
- 이성운(2013), 「현행 수륙재에 대한 검토」, 『韓國禪學』제36호, 한국선학회.
- 이성운(2015),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집, 한국불교학회.
- 이성운(2016), 「佛敎 儀禮儀文의 名稱에 대한 考察」, 『기호학연구』 제47집, 한국기호학회.
- 鄭明熙(2013), 『朝鮮時代 佛敎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성운(2013), <불교의례의 미학(2): 합장으로 올리는 꽃 공양>, <법보신문>(2013.1.23.일자).

[Abstract]

Consideration on Compiling Kyeongsan Edition of
Suryukuimun

The lead author: **Lee, Sungwoon**

Research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Ritual culture

The second author: **Park, Sungak**

Researcher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Ritual culture

This writing considers publishing the offering ritual oration for land and water in Korean Buddhism,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appropriateness of compiling its Kyeongsan edition by Kyeongjae Sori Preservation Society, Seou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43 and Research Institute of Kyeongjae Eosan.

It is made clear that the offering ritual orations for land and water were complied as applicable. Also, history of its domestic and foreign publication was briefly examined. Its Kyeongsan edition shows that it embraces viewpoints of a variety of reference materials, embodies the spirit of not inventing but narrating (述而不作) in accordance with the form of transmission of Buddhist ritual oration and contains its annotation and interpretation. Nonetheless, it has a problem that we need to work on.

Generally, the following four elements should be take into consideration to publish the offering ritual oration for land and water in a desirable one; its formality, being open-minded, knowing that Korean ritual oration is not everything and the unities of its ritual oration and setting.

Keywords: Suryukuimun(水陸儀文, the offering ritual oration for land and water), Kyeongsan edition, Seou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43, Kyeongjae Sori, Gyeolsumun
(結手文, making mudrās), Jungryemun (中禮文, the
ritual program in epitome), the ‘getting wind of
something and taking action in advance’ (見機而作)

투고일 : 2020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 2020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일